[서식 예]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(임차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, 주택)



소 장

- 원 고 1.000(주민등록번호)
 - 2. ●①○ (주민등록번호)
 - 3. ●②○ (주민등록번호)

위 원고들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⟨★★★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 ○○○에게 금 30,000,000원, 원고 ●①○, 원고 ●②○에게 각 금 20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신분관계
 - 가. 원고 ○○○는 소외 망 ◉◉◉의 배우자이고, 원고 ◎①○, 원고 ◎②○는 각 소외 망 ◉◉◉의 아들이고, 소외 망 ◎◎◎는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-○ 소재 피고 소유의 건물을 피고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입니다.
 - 나. 피고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●●●에게 피고 소유의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.
- 2. 소외 망 ◉◉◉는 피고와 20○○. ○. ○. ○이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-○ 소재

피고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0,000,000원, 임대차기간 20○○. ○. ○. ◎ 2년으로 하여 임차·거주하던 중 20○○. ○. ○○.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용하였던 바, 원고들은 소외 망 ⑥ ⑥ ●의 배우자 및 아들로서 소외 망 ⑥ ⑥ ●를 상속한 정당한 상속인입니다.

- 3. 원고들은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 전인 20〇〇. 〇〇. 〇.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 차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,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지금까지 별다른 사유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 고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피고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○○○에게 금 30,000,000원(70,000,000 원×3/7), 원고 ●①○, 원고 ●②○에게 각 금 20,000,000원(70,000,000원×2/7)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

1.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

1. 갑 제4호증 기본증명서(망 ◉◉◉)

1. 갑 제5호증 가족관계증명서(망 ◉◉◉)

첨 부 서 류

1통

1. 위 입증방법 각1통

1. 소장부본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1. 000 (서명 또는 날인)

2. ●①○ (서명 또는 날인)

3. ◎②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조선멸시효일람표 WANN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
 및 기 간	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 ・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,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반환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,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(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1다77697 판결). ・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,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・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하되, 다만 사용・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함(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8다15545 판결). 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

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